

공동체 소식



사순 제1주일

전능하신 하느님, 해마다 거룩한 성사로 사순 시기를 지내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회개의 삶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소서.

2월 기도지향

- + 류기범 요셉, 신혜경 마리아 가정
- + 장시우 시몬, 장남순 올리안나 가정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기도' 안내

- 시간 : 매 사순주일 교중미사 40분 전에 '십자가의 길 기도'를 공동으로 바칩니다.

본당 평협회

- 일시 : 다음 주일(2/21) 교중미사 후
- 장소 : 나자렛관(본당회관)

로렌스 공동체 미사

- 일시 : 2/27(토) 오후 5:30

총구역회 모임(구역장 모임)

- 일시 : 2/28(주일) 교중미사 후
- 장소 : 나자렛관(본당회관)

지난주일 미사 중에 주일학교 교사임명장 수여가 있었습니다.

- 교사 : 김정훈 베드로, 은유나 요안나, 선하서 미카엘라, 현영애 베로니카
- 내용 :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캔사스대교구 '자비의 특별희년 나눔초대 -Archbishop's Call to Share'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나눔에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이미 많은 신부님들이 동참하고 있고,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 -RESPONDING (https://www.calltoshare.org/).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115	216	167	123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이번주일	고평원 프란치스코	안광민 야고보
	차민서 임마누엘	김준영 요셉
다음주일	문예나 요안나	정병훈 보니파시오
	정예진 한나	김준영 요셉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대연 요셉	신혜경 마리아	박희영 카타리나
차주	김주연 세실리아	김태중 예레미야	김민정 리디아

애찬 봉사자

금주	박정자, 김경돌, 한순례, 정지현
차주	김시연, 신혜경, 김말자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차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사도요한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2/7	84명	421불	1,160불
이영민, 문석찬, 김도영, 정준구, 홍순익, 박재천 (총 6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야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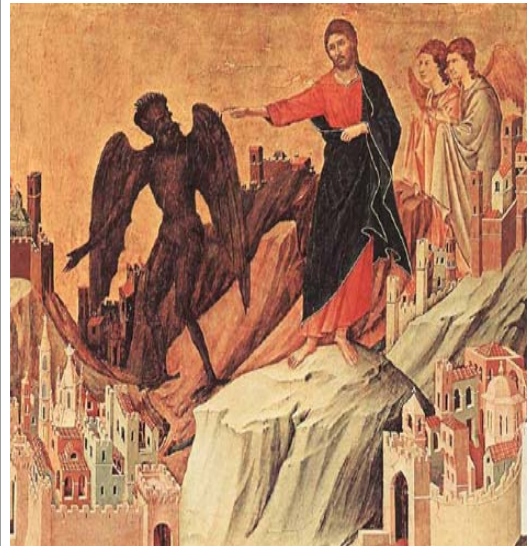
오늘의 전례

오늘은 사순 제1주일입니다. 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을 목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맞서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가르치신 대로, 사순 시기를 맞은 우리도 한 분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신앙을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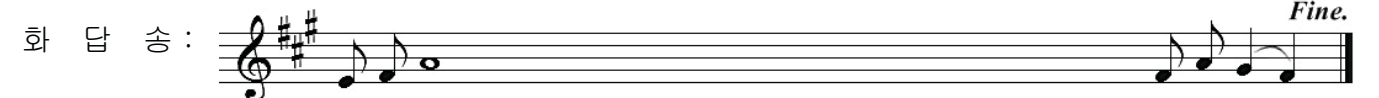
성화해설

광야에서 유혹 받으시는 예수님 (두치오 디 부오닌세냐, 1308-1311)

오른손을 뻗어 산 아래의 화려한 도시들을 가리키며 유혹하는 사탄을 향해 예수님은 위엄있는 표정으로 한 손은 걸뿔을 잡고, 또 한 손은 손가락을 곧게 펴서 성스러우면서도 강력하게 “사탄아 물러가라.”하고 외친다. 사탄은 험상궂은 모습 속에 숨겨진 가련함과 나약함을 드러낸 채 예수님의 눈치만 살핀다. 이제껏 예수님을 유혹하던 강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하느님의 말씀, 사랑과 믿음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 지영현 시몬 신부



제 1 독서 :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26,4-10
<선택받은 백성의 신앙 고백>



◎ 주님, 환난 가운데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아래 사는 이,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안에 머무는 이, 주님께 아뢰어라.

“나의 피신처, 나의 산성, 나의 하느님, 나 그분께 의지하네.” ◎

○ 너에게는 불행이 다가오지 않고, 네 천막에는 재앙이 얼씬도 못하리라. 그분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네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 주시리라. ◎

○ 행여 네 발이 돌부리에 차일세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너는 독사와 살모사 위를 거닐고, 힘센 사자와 이무기를 짓밟으리라. ◎

○ 그가 나를 따르기에 나 그를 구하여 주고, 내 이름 알기에 나 그를 들어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환난 가운데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며, 그를 해방시켜 영예롭게 하리라.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0,8-13
<그리스도 신자의 신앙 고백>

복음환호송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1-13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유혹을 받으셨다.>



쉐 마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서며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파스카 성삼일을 준비하는 사십 일간의 기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순절 동안 자신의 삶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었는지를 되돌아보며 다시금 부활을 가져다주는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겠다고 다짐합니다.

성경에서 사십이라는 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뒤 하늘이 열려 밤낮으로 비가 내리며 땅을 씻어냈던 기간이 사십 일이었고(창세 7,12,17), 산봉우리들이 드러난 뒤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열기 위해 기다렸던 기간이 사십 일이었습니다(창세 8,6). 모세가 하느님과 계약을 맺기 위해 산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사십 일이었고(탈출 24,18),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사십 년이었습니다(탈출 16,35 민수 14,34). 이렇게 보면 사십이라는 수는 정화의 시기, 기다림과 준비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 기간을 거친 이들은 구원을 봅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정착대를 보내는데, 그들은 사십 일 동안 정찰합니다(민수 13,25). 그러나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칼렘만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구원을 봅니다. 또한, 요나서에서 하느님께서 니네베에 심판을 선포하신 뒤 사십 일 뒤에도 그들이 변화가 없다면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요나 3,4). 이렇게 보면 사십이라는 수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구원을, 그렇지 못한 이에게는 심판을 준비하는 시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만을 기준으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된다면 우리 가운데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우리에게 항상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함을, 그분의 도움 없이는 그 누구도 죽음을 이겨낼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2독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

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그분께 의탁하려고 권합니다. 스스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복음이 이야기하듯 예수님께서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사십 일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으며, 우리의 죄를 뒤집어쓰고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십 일의 기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오로는 2독서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느님을 위로하겠다고 덤벼들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의 덕을 닦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믿는다는 것은 진리, 곧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한 바를 실천하지 않는 이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이는 그것을 실천하는 이이며, 그런 이들이 구원으로 나아갑니다. 말하고 싶은 점은 다만, 하느님 도움 없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실천해 보겠다고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인 오늘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들이 무엇인지 떠올려 봅시다. 그 유혹들을 혼자서 물리치려 하십니까? 아니면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십니까?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우리 각자의 나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 엄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주춧돌

아합 왕의 잘못 그리고 회개

어느 날 아람 임금 벤 하닷이 군사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임금 아합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너희들의 은과 금은 나의 것이다. 그대들의 아름다운 아내들과 아들들도 나의 것이다. 내일 이맘때쯤 나의 신하들을 보내어 그대의 집과 신하들의 집을 뒤져서, 그들의 눈에 드는 것은 무엇이든 손을 대어 가져오게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아합 임금은 나라의 모든 원로를 불러 놓고 무엇이 라 말하였고, 결국 어떤 선택을 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1열왕 20,1-12

벤 하닷이 북쪽에서 군사를 이끌고 공격해 왔지만 아합 임금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신하들에게 용사는 전투가 끝난 후의 결과가 중요하다면서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아람 군인들은 규모가 작은 아합의 군대를 앞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진영에 앉아 즐겁게 술을 마시며 놀았습니다. 아합 왕은 벤 하닷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되었나요? 그리고 예언자는 무엇이 라 예언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1열왕 20,13-22

그런데 이듬해 봄, 벤 하닷 임금은 군사를 이끌고 다시 두 번째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때 예언자가 아합 왕에게 와서 “임금께서는 승리하실 것이며 모든 이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야말로 참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언

자의 말을 믿고 싸운 아합의 군대는 다시 승리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아합 왕은 벤 하닷과 어떤 내용의 조약을 맺고 그를 풀어주었나요? 벤 하닷은 아합 왕에게 무엇을 애원했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1열왕 20,23-21,29

이스라엘 왕 아합은 예언자가 불행을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둬진 승리 덕분에 지나친 자신감에 빠져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왕궁 가까이에 있는 포도밭을 탐내어 주인을 죽게 하고 교활하게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이때 엘리야 예언자가 아합 왕에게 찾아와 죄목을 고발하고 왕국이 다른 이에게 넘겨질 것이며, 임금의 가족은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예언자의 질책을 듣고 반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찢어 버리고 자루 옷을 입은 채 자리에 누웠고, 풀이 죽은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아합을 가엾이 보시고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묵상

또다시 당신 앞에

재의 수요일 아침
사제가 얹어준 이마 위의 재처럼
자디잔 일상의 회색빛 근심들을 이고 사는 나
참사랑에 눈뜨는 법을
십자가 앞에서 배우며 진리를 새롭히게 하소서

맑은 성수를 찍어 십자를 긋는 내 가슴에
은빛 물고기처럼 튀어 오르는
이 싱싱한 기도
'주님, 내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내 안에 굳센 정신을 새로 하소서.'

- 이해인